

## 과민성 자기에 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인 과민성 자기에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를 번안하여 그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60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민성 자기에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496명에게는 외현적 자기애,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내향성, 자존감을 측정하는 검사들, 그리고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대인형용사 척도를 함께 실시하여 그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과민성 자기에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단일 요인 혹은 2 요인이 추출될 수 있으며, 2 요인으로 지정할 때는 '평가예민성'과 '자기몰입'이라는 요인이 추출됨을 볼 수 있었다. 과민성 자기애의 두 요인은 공통적으로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정적 상관을, 외향성 및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두 요인 중 평가예민성 요인은 외현적 자기애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몰입 요인은 정신병적 경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원형 모델의 두 차원인 지배-순종 차원 및 우호-냉담 차원과 과민성 자기애의 관련성을 보았다. 그 결과, 평가예민성 요인은 다소 비우호적이고 순종적인 대인관계 행동, 즉 수동공격적인 행동특성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자기몰입은 주로 비우호적이고 냉담하며 회피적인 대인관계 행동들과 정적 상관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과민성 자기에 척도가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측정 도구와 연구 성과가 빈약하였던 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안 사항을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2000년도 가톨릭대학교 정착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자기애(narcissism)라는 용어의 공식적인 등장은 Havelock Ellis가 1898년에 한 남성의 자기성애(auto-eroticism) 사례를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Narcissus) 이야기에 빗대어 묘사하고, 이듬해 Nacke가 Ellis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Narcissmus'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Akhtar & Thomson, 1982에서 재인용). 그러나 자기애를 인간의 심리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전면에 등장시킨 사람은 Freud였다. Freud(1953)는 자기애라는 용어를 다양한 심리 현상과 행동 특성을 기술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자기 사랑과 자기 과대화와 같은 태도, 자존감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과대 망상이나 이상화와 같은 방어성, 자기충분성과 완벽함에 대한 추구, 특권의식, 타인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경향 등의 심리 현상과 대인관계 행동이 포함되었다. 자기애에 대한 관심은 Freud 이후의 정신분석 이론과 임상 실재에서 더욱 강조되어 왔다. 한 예로, 현대 정신분석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Kernberg(1975)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하게 자신에게 몰입하고, 야심이 강하며, 과대 망상적인 공상을 하고,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완벽한 지혜와 권력과 아름다움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큰 관심을 쏟았다.

정신분석학적 논의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의 진단과 성격심리학의 영역에서도 자기애적 현상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에 관한 진단 기준은 병리적인 자기애 현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인의 개인차로서의 자기애적 경향에 관한 연구도 촉진하였다(Emmons, 1987; Raskin & Terry, 1988).

1980년을 전후로 하여 자기애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는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의 진단 기준을 반영하는 진술문들 중에서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보이는 것들만을 선정하여 만든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이렇게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검사들로는 Wink와 Gough(1990)의 CPI 및 MMPI 자기애 척도, Raskin과 Novacek(1989)의 MMPI 자기애 척도, Morey, Waugh와 Blasfield(1985)의 MMPI 자기애 척도 등이 있다. 이들 척도들은 서로 .50~.80의 상관을 보이며 관찰자가 평정한 자기애와도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자기애 척도들은 자기애적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변별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별한 것이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검사는 Ashby, Lee와 Duke(1979)의 NPDS(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로서, 자기애적 문제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비자기애적인 통제집단을 잘 변별해주는 MMPI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척도 제작에서 경험적 방법을 사용한 자기애 검사들로는 Serkownek(1975)의 자기애 척도와 Pepper와 Strong(1958)의 자기애 척도가 대표적이다. 이 두 검사는 MMPI의 5번 척도(Mf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얻은 것들이다. 이들 사이에도 .40~.50 정도의 비교적 높은 상관이 관찰되며, 역시 관찰자가 평정한 자기애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 두 부류의 검사들 간에는 상관이 없거나 미미한 상관만이 있음이 밝혀졌다(Emmons, 1987; Wink, 1991; Wink & Gough, 1990). Wink(1991)는 앞에서 열거된 검사들 중 NPI와 CPI 자기애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MMPI 자기에 척도들을 주성분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서로 직교하는 두 개의 주성분을 얻고 각각 '거대성·과시성' 요인과 '취약성·민감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Rathvon과 Holmstrom(1996)도 MMPI-2에서 도출된 5개의 자기에 척도와 NPI를 요인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애'라는 하나의 이름 속에 서로 매우 다른 성격적·행동적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애를 분류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예컨대, Kohut & Wolf, 1978),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자기애를 외현적(overt) 자기애와 내현적(covert) 자기애로 분류하는 것이다 (Akhtar & Thomson, 1982; Kernberg, 1975; Kohut, 1977; Wink, 1995).

외현적 자기애는 거대한 자기표상 및 자기과시의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DSM에 묘사된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이에 부합된다. 이들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지각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성공과 권력 혹은 이상적 사랑에 대한 공상에 자주 사로잡히며,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믿으며,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바라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며,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거만한 행동을 자주 보인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그 핵심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위축되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하며, 경멸이나 비판의 증거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낀다.

Wink(1991, 1995)는 앞서 열거한 NPI 및 그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검사들은 외현적 자기애를 주로 측정하며, NPDS 및 그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검사들은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들 두 자기애는 거대자기 환상이나 특권의식과 같이 이면의 어떤 공통의 특성을 공유하지만, 자기보고형 검사에서나 관찰자 평정에서는 별다른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병리의 정도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역기능적이라는 증거가 있다. 외현적 자기애와는 달리 내현적 자기애는 안녕감 및 개인적 적응에서의 결손과 관련이 되고 (Wink, 1991), 우울 및 낮은 자존감과 관련되며 (Watson, Taylor, & Morris, 1987), 혼란된 대상관계 및 피학성과 상관이 있다(Hibbard, 1992). 그러나 그 이론적 중요성이나 상담 현장에서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하여 덜 연구되고 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기애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가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NPI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계령, 1997; 김윤주, 1991; 김은영, 1996; 김지연, 1998; 박정민, 1998; 한수정, 1999).

Hendin과 Cheek(1997)은 자기애 측정에 있어서 NPI를 대표로 하는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검사들이 주목을 받는 것에 반하여, 내현적 자기애 측정은 몇몇 잘 알려지지 않은 MMPI 척도들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Murray(1938)가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할 때 자기애적 성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애 척도를 개발하였음에 주목하였다. Murray는 자기애가 이중의 역동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자기애를 외현적, 내현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현대적인 분류와 매우 유사하다. Murray가 볼 때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과대망상과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과도한 욕구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쉽게 느끼며 불안과 박해망상과 과민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20문항으로 된 자기애 척도(Murray's Narcism Scale)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기애의 외현적인 특성과 내현적인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Hendin과 Cheek(1997)은 이 척도와 더불어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두 개의 MMPI 검사(NPDS와 Serkownek의 자기애 척도)를 109명과 151명의 두 여자 대학생 집단과 143명의 남자 대학생 집단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MMPI 척도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10개의 Murray 척도 문항들로 과민성 자기애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를 구성하였다. 이 HSNS는 MMPI 내현적 자기애 척도와 .61~.63의 상관을 보였으며, NPI와는 .02~.16의 유의하지 않거나 낮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NPI의 요인 중 부적응과 특히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착취/특권의식 요인(Emmons, 1987)과는 .18~.25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5요인(Big Five) 척도와 의 관련성에서는 외향성 및 친화성(agreeableness)과는 부적 상관을,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 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을 이해하는 한편, 국내에서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HSNS를 번안하고 타당도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HSNS의 요인구조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

성, 외향성-내향성, 자존감 척도와 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인 성격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내현적 자기애는 정신병적 경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외향성 및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를 함께 측정하여 두 가지 자기애가 이러한 변인들과 맺는 관계가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지 부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 입각한 대인관계 행동사 척도(IAS-R)를 함께 실시하여 HSNS로 측정되는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원형 모델(Kiesler, 1996; Leary, 1957)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인관계 원형 모델은 Leary(1957)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후 대인관계 행동에 관한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자극하였다. 그는 우호-냉담의 '친애성' 차원과 지배-순종의 '지배성' 차원이라는 두 축을 가진 원형(circumplex) 위에 대인관계 행동들을 순서 있게 배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대인관계 평면에서는 바로 옆에 배열된 행동들끼리 서로 유사하며, 지름의 반대편으로 갈수록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 된다. 그림 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애 차원과 이루는 각도를 기준으로 원을 8등분하게 되면, 시계로 비유하면 12시 방향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PA, BC, DE, FG, HI, JK, LM, NO라는 부호가 부여되는데, 모든 대인관계 행동은 이 8분원 중 어느 한 곳에 위치하게 된다. 예컨대 적대적이면서 지배적인 행동들은 BC 8분원에 위치하게 되고, 우호적이면서 순종적인 행동들은 JK 8분원에 위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HSNS의 타당도를 조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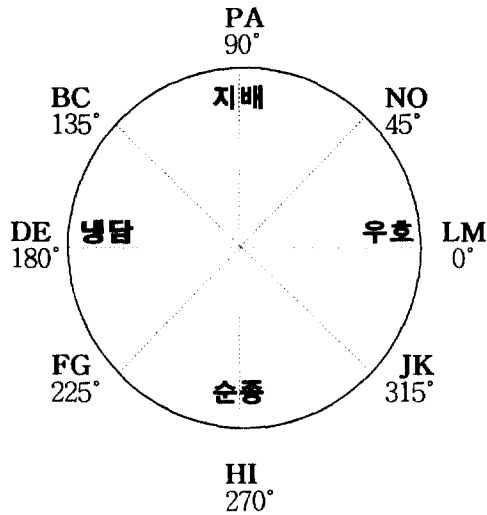


그림 1. 대인관계 원형 모델

진 피험자들이 어떤 대인관계적 행동 특성을 주로 보이는지를 대인관계 원형 모델을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원형 모델에서 HSNS의 위치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내현적 자기의 특성상 다소 비우호적이고 소극적인 행동 특성과 관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법

### 1. 피험자

피험자는 두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집단(표본 1)은 수도권 소재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496(남자 95, 여자 401)명의 대학생들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0.56세(표준편차 2.65)였다. 두 번째 집단(표본 2)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110(남자 76, 여자 34)명의 대학생들로서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0.02세(표준편차 1.71)였다. 표본 2는 표본 1에서 관찰된 과민성 자기

에 척도의 요인 구조가, 다른 대학생 집단에서도 일관성 있게 반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에 포함시킨 것이다.

### 2.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 1) 과민성 자기에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이 검사는 Murray(1938)가 자기애적인 사람들에게서 상호 모순된 경향, 즉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과대망상의 경향이 있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애 검사(Murray's Narcissism Scale)에 기초하고 있다.

Hendin과 Cheek(1997)은 20개 문항으로 된 Murray의 자기애 검사 중에서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MMPI 척도들과 높은 상관을 보인 10개 문항으로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이 검사를 요인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이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에 .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인다는 점과 문항 내용을 근거로, 이 검사가 하나의 공통된 요인(과민성 자기애)을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들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표본에 따라 .62~.76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번안한 HSNS를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먼저 HSNS를 우리말로 번안한 다음 영어와 한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자에게 번역의 정확도를 검토하게 하고 몇 차례의 토의를 거쳐 문항을 수정하였다. 번안된 척도는 부록에 실려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내용은 아래 「결과」 부분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피험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 상에 표시하며(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전적으로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많이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 2)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이 검사는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진단 준거에 근거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외현적 자기애 측정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는 Raskin과 Terry(1988)가 주성분분석을 거쳐 기존의 54문항을 40문항으로 단축한 것으로, 한수정(1999)이 번안한 것이다. Raskin과 Terry(1988)는 이 검사에서 권위, 과시성, 우월성, 허영심, 착취성, 특권의식, 자기

충분성의 7개 주성분을 확인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를 .83으로 보고하였다. 한수정(1999)은 번안된 검사가 .85의 내적 합치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이 검사는 외현적 자기애의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과 그에 반대되는 문항을 나란히 제시하고 둘 중의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 3)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이 검사는 Eysenck Personality Scale(Eysenck & Eysenck, 1991)을 이현수(1997)가 우리나라 표집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여러 하위 척도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및 외향성-내향성(extraversion-introversion)을 측정하는 단축형 검사(각각 12문항)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에서 피험자들은 제시된 진술문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현수(1997)는 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 $\alpha$ )를 정신병적 경향성 .64, 신경증적 경향성 .78, 외향성-내향성 .78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에서 .79, 외향성-내향성에서 .83의 내적 합치도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에서는  $\alpha = .51$ 로 나타나 이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각 문항들의 문항-총점 상관을 검토한 결과, 두 문항<sup>1)</sup>에서 매우 낮은 상관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이 두 문항을 제외하고 다시 신뢰도를 구한 결과 내적 합

1) 일을 착수하기 전에 깊이 생각합니까? ( $\gamma = -.06$ );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 $\gamma = .03$ )

척도 지수가  $\alpha = .60$ 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두 문항이 줄어든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는 기존 척도와는  $\gamma = .94$  ( $p < .001$ )의 상관을 보였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이 축소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 4)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이 척도는 Rosenberg(1965)가 제작한 자존감 척도를 원호택과 이훈진(1995)이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자존감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 특성들인 자신감, 자기가치감 등을 포함하는 단일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제작되었다.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원호택과 이훈진(1995)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alpha$ )가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 5)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Revised; IAS-R)

IAS-R(Wiggins, 1994; Wiggins, Trapnell & Phillips, 1988)은 모두 64개의 대인관계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피험자는 각 형용사가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주는지를 8점 리커트 척도 상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 형용사들은 각각 8개씩 한 묶음이 되어 대인관계 원형 모델의 8분원 하위 척도를 구성한다. IAS-R의 8분원 하위 척도는 '자신있는-지배적인'(PA), '거만한-계산적인'(BC), '냉담한'(DE), '고립된-내향적인'(FG), '자신없는-순종적인'(HI), '겸손한-솔직한'(JK), '따뜻한-친화적인'(LM), '사교적인-외향적인'(NO)으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과 김정옥(인쇄중)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분석 결과, 이 번안된 척도는 원래의 방식대로 형용사를 분류하면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 부합되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형용사들을 재 조합하여 새롭게 8분원 하위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은 「결과」 부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각 하위 척도별 문항번호와 내적 합치도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새로 구성된 8분원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57~.90의 범위이며, 전체 척도의 합치도( $\alpha$ )는 .77이었다.

### 3. 절차

표본 1의 496명의 피험자들에게 과민성 자기에 척도, 자기애적 성격검사, 아이젠크 성격검사, 자존감 척도를 묶어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이 피험자들 중 462명에게는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도 함께 실시하였다. 표본 2에 속하는 110명의 피험자들에게는 과민성 자기에 척도만을 실시하였다.

### 4. 분석방법

먼저 과민성 자기에 척도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 1과 표본 2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표본 1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과민성 자기에 척도와 다른 척도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원형구조를 파악한 뒤, 대인관계 행동의 두 차원과 과민성 자기에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 결 과

### 1. 과민성 자기에 척도(HSNS)의 요인구조

피험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요인분석하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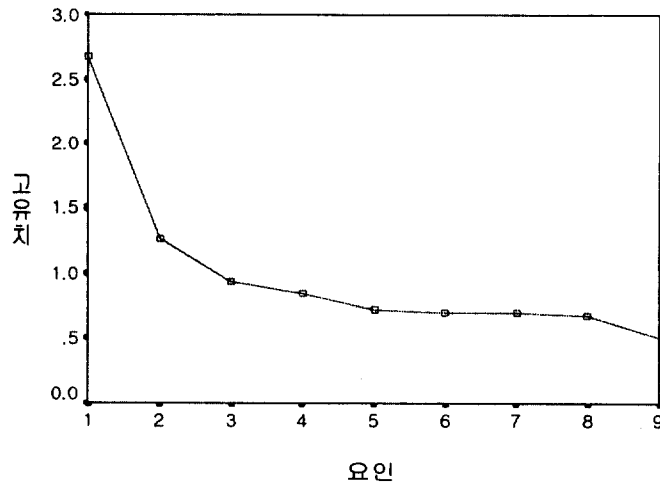


그림 2. HSNS의 요인별 고유치에 대한 Scree 도표

에 먼저 과민성 자기에 척도의 문항-총점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표본 1에서 1번 문항<sup>2)</sup>의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이 .12로 매우 낮게 나왔고, 이 문항을 제외시킬 때 내적 합치도 지수( $\alpha$ )가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표본 2에서는 1번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이 -.13으로 나왔으며 역시 이 문항을 제외시킬 때 전체 신뢰도가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번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문항만으로 요인분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두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요인분석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부록 참조).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집단을 결합한 전체 피험자 집단(남 171, 여 435, 전체 606명)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만을 보고하기로 하였다.

먼저,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초기 고유치와 스크리 도표(그림 2)를 검토하였다. 1이 넘는 고유치를 가진 요인은 모두 2개로서, 각각의 고유치는 2.67과 1.26으로 총 변량의 43.65%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부터는 고유치가 비교적 평균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요인의 수효를 하나인 경우와 둘인 경우로 나누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HSNS의 요인행렬(요인의 수를 1로 지정한 경우)

문항번호	요인부하량
2	.383
3	.407
4	.494
5	.558
6	.388
7	.520
8	.353
9	.514
10	.470

2) '나는 나 개인의 일, 건강, 걱정거리, 인간관계 등을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다 잊고 오직 그 생각에만 몰두할 수 있다.'



우선 요인의 수를 하나로 지정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것은 Hendin과 Cheek(1997)이 시행한 요인분석의 결과처럼, 모든 문항이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에 높은(.30 이상) 요인부하량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문항들이 최대우도 방식으로 추출된 첫 번째 요인(고유치 1.90)에 .35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가짐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HSNS의 모든 문항이 동일한 하나의 요인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가 반드시 한 요인 구조만을 지지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앞의 스크리 검사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두 요인을 지정하여 두 번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번에는 최대우도법으로 두 개의 요인을 추출한 뒤 Direct Oblimin( $\delta=0$ ) 방식으로 사각회전을 실시

하였다. 직교회전을 하지 않고 사각회전을 한 이유는 추출될 내현적 자기에 요인들이 그 의미상 서로 상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었다. 요인분석 결과 2, 3, 4, 5, 7번 문항이 하나의 요인(요인 1, 고유치 1.66)에 소속되고, 8, 9, 10번 문항이 또 다른 요인(요인 2, 고유치 1.58)에 소속됨을 볼 수 있었다. 한편 6번 문항은 두 요인에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여, 어느 한 요인에 분명하게 소속되지 않았다. 추출된 두 요인의 상관계수 추정치는 .46이었다. 표 2는 이러한 결과를 요약한 요인행렬(형태계수 행렬)로서, 각 요인에 소속되는 문항을 요인부하량이 큰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요인별로 묶인 문항의 내용을 보면, 요인 1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과 예민함, 혹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 1에는 ‘평가

표 2. HSNS의 요인행렬 (요인의 수를 2로 지정한 경우)

문 항	요인1	요인2
2.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나는 기분이 쉽게 상한다.	.557	-.109
3.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는 종종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이 쓰이고, 남들의 시선이 내게 쏠리는 느낌이 든다.	.546	-.067
5.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으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다.	.508	.115
7.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나에게 대한 비난으로 해석한다.	.455	.132
4. 나는 내 일의 공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싫다.	.405	.149
9. 나는 내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걱정해 줄 여유가 없다.	-.081	.820
10.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주시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098	.471
8. 나는 종종 내 자신의 관심사에만 몰두해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001	.434
6.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교해 기질이 좀 다른 것 같다.	.211	.219

예민성'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 2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타인을 배려할 여유 혹은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으로, '자기몰입'으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뒤이어 전체 척도와 각 하위 척도 별로 내적 합치도 지수( $\alpha$ )를 구하였다. 2~10번 문항을 가지고 계산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표본 1에서 .69, 표본 2에서 .71, 전체 표본에서 .70 이었다. 평가예민성 하위 척도의 경우는 표본 1에서 .62, 표본 2에서 .66, 전체 표본에서 .64로 나타났고, 자기몰입 하위 척도의 경우에는 표본 1에서 .55, 표본 2에서 .62, 전체 표본에서 .56이었다. 전체 척도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하위 척도로 나누게 되면 신뢰도가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자기몰입 척도는 문항이 3개에 불과하여 좀 더 만족스러운 심리측정적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용타당도가 있는 적절한 문항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척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요인분석에서 얻은 결과는 과민성 자기에 척도가 내적 일관성이 있는 요인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요인의 구조는 한 요인으로 볼 수도 있고 두 요인으로 볼 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후속되는 분석에서는 과민성 자기에 척도의 타당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 척도가 아이젠크(Eysenck)의 성격차원들, 자존감 척도 그리고 외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자기애적 성격검사(NPI)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 2. 자기애적 성격검사, 아이젠크 성격검사 및 자존감 척도와의 관계

앞의 요인분석에 자료를 제공한 피험자 집단

표 3.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평균	표준편차
HSNS	26.99	4.71
평가예민성	16.66	3.06
자기몰입	7.24	2.17
NPI(자기애적 성격검사)	14.63	6.76
EPQ(아이젠크 성격검사)		
정신병적 경향성	1.34	1.56
신경증적 경향성	6.29	3.19
외향성-내향성	7.29	3.21
SES(자존감 척도)	35.84	5.91

n=496

중 표본 1의 피험자들에게는 과민성 자기에 척도(HSNS)와 더불어, 외현적 자기에 성향을 측정하는 자기애적 성격검사(NPI), 아이젠크 성격검사(EPQ) 그리고 자존감 척도(SES)를 함께 실시하였다. 이들에게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과민성 자기에 척도의 전체점수 및 하위 척도 점수가 이들 검사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표 3에는 각 척도에서 피험자 집단이 보인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으며, 표 4에는 인구학적 변인인 연령과 성별을 포함한 각 척도들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HSNS의 두 하위 척도들 간에는 유의하지만 아주 높지는 않은 상관(.34,  $p < .001$ )이 있었다. 이들 두 하위 척도는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 외향성 및 자존감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HSNS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피험자들은 다소 자존감이 낮고 내향적이면서,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기분변화가 비교적 심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표 4. HSNS와 다른 척도와의 상관

척도	HSNS	평가 예민성	자기몰입	외현적 자기애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 내향성	자존감	연령	성별
HSNS										
평가예민성	.86**									
자기몰입	.73**	.34**								
NPI(외현적 자기애)	.23**	.21**	.07							
정신병적 경향성	.06	-.02	.12**	.01						
신경증적 경향성	.45**	.43**	.30**	-.06	-.01					
외향성-내향성	-.15**	-.10*	-.17**	.48**	.03	-.33**				
SES(자존감)	-.23**	-.24**	-.17**	.44**	-.01	-.49**	.40**			
연령	-.06	-.13**	.05	-.00	.05	-.07	-.06	.05		
성별	.03	.05	.01	-.03	-.05	.09	.00	-.00	-.23**	

n=496, \* p < .05 \*\* p < .01

그러나 두 하위 척도는 외현적 자기애 및 정신병적 경향성과는 서로 다른 상관의 경향을 보였다. 즉, 평가예민성 척도는 외현적 자기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정신병적 경향성과는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기몰입 척도는 이와는 반대로 외현적 자기애와 상관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신병적 경향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과민성 자기에의 자기몰입적 특성은 정신병적 경향성의 특징, 즉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며 자기중심적인 특성과 일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NPI는 HSNS와 유의한 상관(.23,  $p < .001$ )을 보이면서도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 자존감 척도와는 HSNS와 전혀 다른 양상의 상관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두 자기애가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매우 다른 특성을 담고있는 개념임을 보

여준다. 과민성 자기애와는 달리 외현적 자기애 특성을 보이는 피험자들은 자신을 매우 외향적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는 한편으로 이들은 평가예민성 척도와의 정적 상관을 통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두 자기애의 공통적 특성이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면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과민성 자기애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HSNS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아이젠크 성격 차원과 자존감 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평가예민성 하위 척도가 연령과 부적 상관이 있고 연령은 또한 성별과 상관이 있었으므로<sup>3)</sup>, 이들 두 인구학적 변인을 먼저 통제한 뒤에 회귀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

3) 연령과 성별이 부적 상관(-.23)을 보인다는 것은 남자들의 나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는 남학생들 중에 복학생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라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령과 성별 변인이 설명하는 변량을 먼저 제거한 뒤 남은 변량을 독립변인들이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HSNS의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연령과 성별이 변량의 0.4%를 설명하였고, 이어서 아이젠크 성격차원과 자존감 척도가 변량의 20.5%를 추가로 설명함을 발견하였다. 이때 증가되는 변량의 유의도 검증에서는  $F(4, 489) = 31.76$  ( $p < .001$ )으로 매우 유의함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평가예민성 하위 척도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연령과 성별이 변량의 1.7%를 설명하였고, 뒤이어 추가된 독립변인들이 변량의 19.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 $F=27.03, p < .001$ ). 세 번째로, 자기몰입 하위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연령과 성별이 변량의 0.3%를 설명하였고 나머지 독립변인들이 변량의 11.4%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 $F=15.78, p < .001$ ).

표 5, 표 6, 표 7은 각각 과민성 자기애 전체 척도, 평가예민성 하위 척도, 자기몰입 하위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 성별, 아이젠크 성격차원들, 자존감 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모든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의 회귀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이 더 강할수록 평가예민성이 높았으며,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강할수록 자기몰입의 경향이 강하였다. 한편 외향성과 자존감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와의 높은 상관으로 인해 설명력을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과민성 자기애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예민함,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민함, 타인의 필요와 감정에 둔감하고 냉담한 성격 특성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인 : 과민성 자기애 전체 척도)

변 인	회귀계수( $\beta$ )	t	유의도
성별	-.018	-.427	.670
연령	-.033	-.800	.424
정신병적 경향성	.069	1.719	.086
신경증적 경향성	.447	9.475	<.001
외향성-내향성	-.002	-.042	.966
자존감	-.006	-.126	.900

표 6.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 평가예민성 하위 척도)

변 인	회귀계수( $\beta$ )	t	유의도
성별	-.008	-.197	.844
연령	-.095	-2.264	.024
정신병적 경향성	-.011	-.265	.791
신경증적 경향성	.409	8.588	<.001
외향성-내향성	.050	1.109	.268
자존감	-.056	-1.152	.250

표 7.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 자기몰입 하위 척도)

변 인	회귀계수( $\beta$ )	t	유의도
성별	.009	.200	.841
연령	.061	1.382	.168
정신병적 경향성	.126	2.954	.003
신경증적 경향성	.282	5.651	<.001
외향성-내향성	-.082	-1.740	.083
자존감	.004	.080	.936

### 3. 대인관계 원형모델에서의 자기애의 위치

표본 1의 피험자(496명) 중 34명을 제외한 462

명(남자 88명, 여자 374명)에게는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IAS-R)를 함께 실시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원형 모델의 두 차원과 관련하여 과민성 자기에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가 과연 이론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실제로 원형 모델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대인관계 형용사들이 변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피험자들에게는 원래의 뜻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서 원저자(Wiggins, 1994)에 의해 구성된 원래의 8분원 하위 척도들(octant scales)의 평균점수를 얻은 뒤 이 점수들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상관계수로부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2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varimax 방식의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형용사들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요인(고유치 2.27)은 지배-순종의 지배성 차원을 나타내고 두 번째 요인(고유치 1.93)은 우호-냉담의 친애 차원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각 하위 척도들이 이론적인 각도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어서(그림 3 참조), 원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8분원 척도를 구성하기로 하고, 피험자들로부터 얻은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 점수를 요인분석하였다. 최대우도법으로 고유치가 큰 순서대로 2개의 요인을 추출한 뒤 varimax 방식으로 직교회전을 하였으며 각 형용사별로 두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을 얻었다. 요인부하량의 크기와 부호를 검토한 결과 이 두 요인은 각각 지배 차원과 친애 차원으로 명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단계로, 형용사들이 x축(친애 차원)과 이루는 각도를 계산하였고<sup>4)</sup>, 또한 두 개의 요인부하량을 제공하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즉, 공통분)를 계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평면상에서 형용사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형용사가 x축(친애 차원)과 이루는 각도에 기초하여 PA로부터 NO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8분원 하위 척도를 만들 수 있었다.<sup>5)</sup> 원래의 척도에서는 하위 척도마다 8개씩 같은 수의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새로 구성된 척도는 4~14개의 범위로 문항의 수가 서로 달랐다. 가능하면 공통분(communality)의 크기도 고려하여 충분히 큰 형용사 모집단으로부터 하위 척도마다 동일한 수의 문항을 선별할 수 있었으면 이상적이었겠지만, 총 64개의 형용사만으로 8개의 하위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취사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각 하위 척도별 문항번호,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는 부록을 참조할 것).

새로 구성된 8분원 척도가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 부합하는지 알기 위하여 새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두 요인을 추출 및 회전하였으며, 첫 번째 요인은 지배 차원(고유치 2.56)으로, 두 번째 요인은 친애 차원(고유치 1.85)으로 명명되었다. 두 요인은 전체 변량의 약 55.1%를 설명하였다. 이를 대인관계 평면에 제시한 것이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4) 각도(degree)=arctan(지배성/친애성)×(180/3.14159)

5) 67.5° 이상 112.5° 이하이면 PA 척도,  
112.5° 이상 157.5° 이하이면 BC 척도,  
157.5° 이상 202.5° 이하이면 DE 척도,  
202.5° 이상 247.5° 이하이면 FG 척도,  
247.5° 이상 292.5° 이하이면 HI 척도,  
292.5° 이상 337.5° 이하이면 JK 척도,  
337.5° 이상 22.5° 이하이면 LM 척도,  
22.5° 이상 67.5° 이하이면 NO 척도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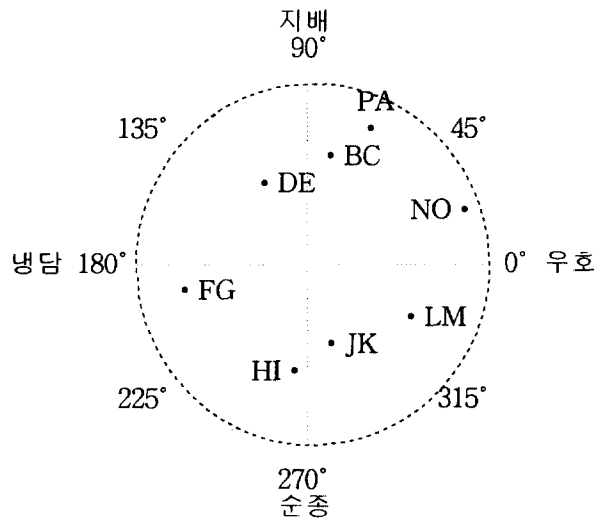


그림 3. 대인관계 원형 모델상에서 기존 IAS-R의 8분원 하위 척도(octant scales)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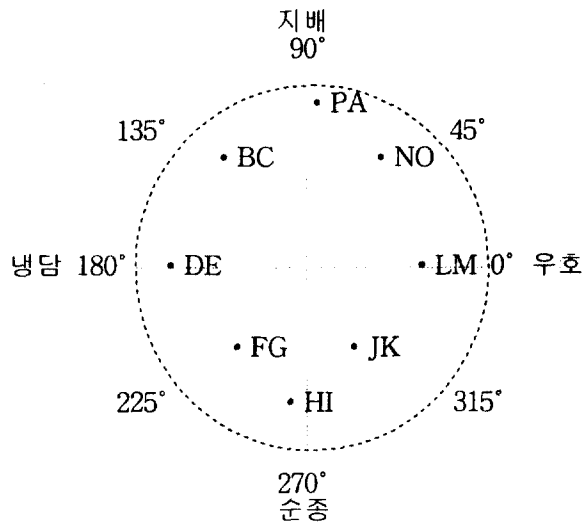


그림 4.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 따라 새로 구성된 IAS-R의 8분원 하위 척도의 위치

다음으로는, Fisher(1983)가 원형모델에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한  $\chi^2$  검증의 절차에 따라 새로 구성된 척도가 이론적 모델에 부합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8분원 척도의 실제 각도와 이론적 각도의 차이에 대하여 코사인(cosine)을 취한 코사인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평균 각도 차이는 8.824° 였으며, 평균 코사인 상관은 .988이었다. Fisher의 공식  $\chi^2_{(1)} = \sqrt{2n} \times \cos^2$  ( $n$ 은 범주의 수. 여기서는 8)은 실제 척도가 이론적 척도와 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을 검증할 수 있게 해 준다. 새로 구성된 척도에서 얻은  $\chi^2$  값은 3.906 ( $p < .05$ )으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새로 구성된 8분원 척도의 위치는 대인관계 모델에 따른 이론적 위치와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기존의 8분원 척도에서는 평균 각도 차이가 36.405°, 평균 코사인 상관이 .805였으며,  $\chi^2_{(1)} = 2.591$  ( $p > .05$ )로 이론적 원형모델에 부합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대인관계 형용사의 8분원 하위척도들이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적합함이 밝혀짐에 따라 과민성 자기애가 대인관계 원형 모델의 두 차원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첫째, 8분원 하위척도 점수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한 뒤 각 피험자별 요인점수를 계산하여 이 점수와 HSNS 총점 및 두 하위 척도 점수와 상관을 구하였다. 표 8은 과민성 자기애 점수들과, 회귀 방식으로 얻은 두 요인점수의 상관행렬이다. 여기서 두 요인점수는 각각 친애 차원과 지배 차원을 반영한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HSNS는 지배 차원과는 강한 연관성이 없으면서 친애 차원과는 비교적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HSNS를 두 하위 척도로 나누어 살펴볼 때 평가예민성 하위 척도는 두 차원과 다소 낮은

표 8. 과민성 자기애 척도와 대인관계 원형모델의 두 차원과의 상관

척도	요인점수1 (친애 차원)	요인점수2 (지배 차원)
HSNS	-.36**	-.05
평가예민성	-.18**	-.10*
자기몰입	-.43**	-.02

N=496, \* p < .05 \*\* p < .01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몰입 하위 척도는 친애차원과만 비교적 강한 부적 상관을 나타낼 수 있었다.

과민성 자기애가 대인관계 원형 모델의 두 차원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HSNS 점수와 대인관계 형용사의 8분원 하위 척도 점수를 함께 투입하여 새로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HSNS의 전체 점수와 8분원 하위 척도 점수를 요인분석하였다. 요인의 수를 2개로 지정하여 최대우도법에 따라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회전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지배 차원으로 고유치가 2.55였으며 두 번째 요인은 친애 차원으로 고유치가 2.02였다. 두 요인이 전체 변량의 50.7%를 설명하였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5이다(요인부하량은 부록 참조). 그 다음으로 HSNS의 두 하위 척도와 대인관계 형용사 8분원 하위 척도를 함께 투입하여 같은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두 요인은 역시 지배 및 친애 차원으로 고유치가 각각 2.54, 2.16이었으며 전체 변량의 47.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이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요인부하량은 부록 참조). 분석 결과 과민성 자기애는 앞의 요인점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인행동의 친애 차원과 관계가 깊으며, 냉담하고 비사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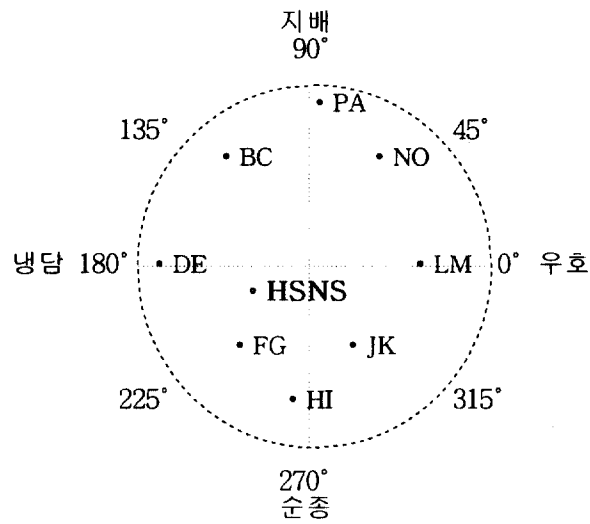


그림 5.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서 HSNS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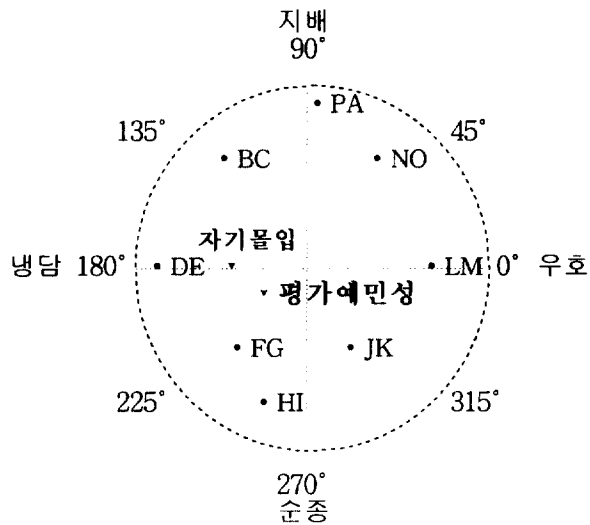


그림 6.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서 평가예민성/자기몰입의 위치



마지막으로, 과민성 자기에 척도의 대인관계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인 형용사들을 살펴보았다. 표 9는 과민성 자기에의 두 하위 척도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형용사들을 상관계수의 크기 순서대로 각각 10개 씩 선별한 것이다. 평가예민성과 상관이 높은 형용사들 중 '고립적이다', '비사회적이다', '비사교적이다', '사람을 멀리한다'의 4개는 8분원 척도 중 FG에 포함되고, '불임성이 없다'와 '쾌활하지 않다'는 HI에, '부끄럼을 탄다'와 '마음이 약하다'는 JK 척도에 각각 포함되는 것이었다. 지배적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자랑을 잘한다(PA)' 밖에 없었다. 즉, 평가예민성은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서 대체적으로 다소 비우호적이면서도 소극적인 행동 특성과 주로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자기몰입과 높은 상관을 보인 형용사들 중에서는 DE 척도를 이루는 5개의 형용사(인정이 없다, 동정심이 없다, 따뜻함이 부족하다, 계산적이다, 냉정하다)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BC (독하다, 지배적이다)와 FG 척도(고립적이다, 사람을 멀리한다, 비사회적이다)에 해당되는 형용사들도 있었다. 다시 말해 자기몰입은 대체적으로 지배 차원에서는 중립적이지만 친애 차원에서는 비우호적이고 냉담한 행동 특성과 비교적 강한 관계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대인관계 원형 모델을 이용한 몇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과민성 자기에는 대인관계 차원에서 주로 비우호성 혹은 냉담함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배성 차원에서는 특별히 지배적이지도 순종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두 하위 요인 중 평가예민성의 경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다소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대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지각한

표 9. 과민성 자기에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대인관계 형용사

평가예민성과 상관이 높은 형용사	자기몰입과 상관이 높은 형용사
고립적이다 (.24)	인정이 없다 (.31)
불임성이 없다 (.21)	동정심이 없다 (.31)
자랑을 잘 한다 (.20)	따뜻함이 부족하다 (.28)
비사회적이다 (.19)	고립적이다 (.27)
비사교적이다 (.18)	계산적이다 (.27)
부끄럼을 탄다 (.17)	독하다 (.27)
사람을 멀리한다 (.17)	냉정하다 (.27)
마음이 약하다 (.17)	사람을 멀리 한다 (.23)
쾌활하지 않다 (.17)	지배적이다 (.22)
계산적이다 (.14)	비사회적이다 (.22)

괄호 안은 상관계수임. 모든 상관계수가 유의함 ( $p < .01$ ).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평가예민성은 소극적이면서도 비우호적인 행동 특성, 즉 수동 공격적인 대인관계 행동과 관련이 있음이 시사되며, 자기몰입성은 냉담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회피적인 대인관계 행동과 관련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논 의

Hendin과 Cheek(1997)은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가 부족함을 보고 Murray(1938)가 개발한 자기에 척도(Murray's Narcism Scale)에서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과민성 자기에 척도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HSNS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HSNS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개의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총점 상관의 낮은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하나의 주 요인과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여 전체 문항이 동일한 특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요인의 수를 2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한 경우에는 서로 상관이 있는 두 요인으로 나누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때 두 요인은 각각 '평가에민성'과 '자기몰입'으로 명명되었다. 특히 두 피험자 집단에서 거의 동일한 요인분석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HSNS의 요인 구조가 집단에 걸쳐서 안정적임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요인 당 문항수가 5개, 3개에 불과하여 신뢰도가 만족스럽게 높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내용타당도가 있는 문항들을 더 개발하거나 수집하여 HSNS에 포함시키고 다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두 번째로 HSNS의 전체 척도와 하위 척도가 아이젠크의 성격차원 및 자존감 척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외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NPI를 함께 실시하였기 때문에 두 종류의 자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들 척도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SNS와 NPI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평가에민성 하위 차원과 NPI의 상관 때문이었다. 이 사실로부터 두 자기의 공통점이 타인의 평가 및 인정에 대한 갈망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Kohut (1971, 1977)은 거대자기와 이상화의 두 축을 따라 자기가 발달하는데, 이 때 자기대상(selfobject)의 공감에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이 자기대상의 공감의 실패가 자기에적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기에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치감 조절의 기능을 내면화하지 못

하고 자기대상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와 인정을 늘 갈망하는 상태가 되며 이것이 자기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이다. 다만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미 받고 있다고 방어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고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서 HSNS와 두 하위 척도는 신경증적 경향성과 매우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내현적 자기에는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쉽게 우울해지며 사소한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 특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몰입 하위 척도는 정신병적 경향성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자기몰입의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며 다소 충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 따라 민감성 자기가 어떤 대인 행동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IAS-R을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맞게 재구성하여 관찰해 본 결과 내현적 자기에는 주로 대인 행동의 친애 차원과 부적으로 관련된다는 것, 즉 비우호적인 대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SNS를 두 하위 척도로 나누어 관찰할 때는, 평가에민성이 다소 수동공격적인 행동과 관련이 되고, 자기몰입은 상당히 비우호적이고 냉정한 행동과 관련이 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여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회피하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행

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HSNS가 내현적 자기에의 풍부하고 복잡한 개념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개념의 일부 측면들을 의미있게 측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앞으로 계속해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HSNS는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척도의 문항들은 그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환자 집단이 아닌 일반인의 정상적인 범위의 자기에를 측정하는 데는, 때때로 애매하고 기이한 느낌을 주는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MMPI 척도들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현적 자기에에 비하여 측정의 도구와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던 내현적 자기에의 영역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신뢰로운 측정도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연구자의 연구 자원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점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일 것이다. 앞으로는 내담자 집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적절한 문항을 더 개발해야 할 것이다. 좋은 문항을 더 얻기 위해서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문항들을 만들어 내거나, 상담자들을 통하여 자기애적인 내담자들이 보이는 행동특성을 수집하거나, 기존의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들에서 문항을 빌려오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Robins와 Patton(1985)이 Kohut의 이론에 따라서 개발한 목표 불안정성 척도(Goal Instability Scale)나, O'Brien(1987)의 다면적 자기에 검사(Multiphasic Narcissism Inventory)는 그 좋은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애적 경향, 특히 내현적 자기에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내담자들을 상담실에서 자주 만

날 수 있다. 이들이 다른 내담자들과 비교하여 주로 어떤 문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이들이 상담자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지, 또 어떤 전이 양상을 보이고 상담자가 이를 어떻게 다룰 때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등 상담 실재에서 내담자의 자기애적 문제와 상담자의 바람직한 상담 전략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권석만, 김정옥 (인쇄중).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개발. 미발표 논문.
- 김계령 (1997). 자기애적 성격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주 (1991).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영 (1996). 대학생의 나르시시즘 성향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 (1998).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대인관계 유형 및 대인관계 적절성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정민 (1998). 비행 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원호택, 이훈진 (1995). 편집증적 경향성,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집(pp.277-290).
- 이현수 (1997).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Author.
- Ashby, H. U., Lee, R. R., & Duke, E. H.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MMPI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91). *Manual for the Eysenck Personality Scales*. London: Hodder & Stoughton.
- Fisher, G. A. (1983, September). *Coefficients of agreement for circular dat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Detroit, MI.
- Freud, S.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ibbard, S. (1992). Narcissism, shame, masochism, and object relations: An exploratory correlational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9, 489-508.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iesler, D. J. (1996).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 Wolf, E. (1978). The disorder of the self and their treatment: An outlin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9, 413-425.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Press.
- Morey, L. C., Waugh, M. H., & Blashfield, R. K. (1985). MMPI scales for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Their derivation and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10-625.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Brien, M. L. (1987). Examining the dimensionality of pathological narcissism: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O'Brien Multiphasic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61, 499-510.
- Pepper, L. j., & Strong, P. N. (1958). *Judgmental subscales for the Mf scale of the MMPI*. Unpublished materials. Hawaii Department of Health, Honolulu, HI.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askin, R.,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66-80.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1-19.
- Robbins, S. B., & Patton, M. J. (1985). Self-Psychology and career development: Construction of the Superiority and Goal Instability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21-23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rkownek, K. (1975). *Subscales for Scales 5 and 9 of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 335-350.
- Wiggins, J. S. (1994).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Wiggins, J. S., Trapnell, P., & Phillips, N. (1988). Psychometric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IAS-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3, 517-530.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ink, P. (1995). Narcissism. In C. G. Costello (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disordered*.(pp.146-172). New York: Wiley.
-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446-462.

## A Validation Study of the Hypersensitivity Narcissism Scale (HSNS)

Nam-Woon Ch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validate a Korean version of the Hypersensitivity Narcissism Scale(HSNS; Murray, 1938; Hendin & Cheek, 1997). The HSNS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administered to two samples of college students (total N=606). And one sample of the subjects also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f overt narcissism, psychoticism, neuroticism, extraversion-introversi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Factor analyses of the HSNS resulted in one general factor or two interrelated factors, 1 implying 'oversensitivity to evaluation' and the other 'self-absorption'. Both factors correlated positively with neuroticism and negatively with extraversion and self-esteem. Oversensitivity to evaluation correlated with overt narcissism, and self-absorption with psychoticism. Next, the HSNS and its two factors were located within the interpersonal circumplex model. Oversensitivity wa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somewhat passive-aggressive behaviors, and self-absorption with cold and avoidant behavi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SNS had good properties as a measure of covert narcissism.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on narcissism.

부록 1. HSNS 문항의 표본별/요인별 요인부하량(요인행렬)

문 항	요인 수를 1로 지정		요인 수를 2로 지정			
	표본1	표본2	표본1		표본2	
	요인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1. 나는 나 개인의 일, 건강, 걱정거리, 인간관계 등을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다 잊고 오직 그 생각에만 몰두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나는 기분이 쉽게 상한다.	.342	.485	.514	-.115	.619	-.045
3.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는 종종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이 쓰이고, 남들의 시선이 내게 쏠리는 느낌이 든다	.409	.368	.550	-.068	.437	-.015
4. 나는 내 일의 공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싫다	.486	.514	.401	.143	.450	.130
5.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으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다.	.566	.527	.539	.099	.452	.104
6.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교해 기질이 좀 다른 것 같다	.418	.311	.260	.199	.141	.219
7.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나에게 대한 비난으로 해석한다	.516	.515	.430	.158	.636	-.056
8. 나는 종종 내 자신의 관심사에만 몰두해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334	.394	-.002	.419	.053	.421
9. 나는 내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걱정해 줄 여유가 없다.	.518	.514	-.057	.818	-.188	.966
10.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441	.592	.085	.458	.220	.454
고 유 치	1.856	2.045	1.618	1.527	1.835	1.763

-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 수가 2인 경우는 Direct Oblimin ( $\delta=0$ ) 방식으로 사각회전한 결과임.
- 표본1 : n=496(남 95, 여 401) / 표본2 : n=110(남 76, 여 34)
- 요인1 : 평가예민성 / 요인2 : 자기몰입
- \* 1번 문항은 문항-총점 상관이 매우 낮아서(표본1에서 .12, 표본2에서 -.13)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부록 2. IAS 8분원 척도의 문항번호, 신뢰도 및 요인부하량

8분원 척도 (octant scales)	해당 문항	신뢰도( $\alpha$ )	친애차원에 대한 요인부하량*	지배차원에 대한 요인부하량*
PA	1,9,11,18,24,26,32,34,40,48,49,56,57,64	.90	-.084	.960
BC	2,10,17,25,33,35,41,42,43,50	.80	-.600	.557
DE	3,19,27,58,59	.74	-.846	-.018
FG	20,28,36,44,51	.78	-.527	-.519
HI	4,12,37,52,53,60	.72	-.220	-.686
JK	5,13,14,21,22,46	.66	.228	-.471
LM	6,7,23,29,30,31,38,39,45,47,55,61,62,63	.85	.530	.082
NO	8,15,16,54	.57	.329	.595

\* 최대우도법으로 두 요인을 추출하여 varimax rotation을 함. n=462.

부록 3. IAS 8분원 척도 및 HSNS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척도	친애차원에 대한 요인부하량	지배차원에 대한 요인부하량
PA	-.031	.957
BC	-.572	.591
DE	-.839	.067
FG	-.573	-.495
HI	-.273	-.678
JK	.176	-.492
LM	.512	.044
NO	.354	.572
HSNS	-.402	-.035

최대우도법으로 두 요인을 추출하여 varimax rotation을 함.

부록 4. IAS 8분원 척도, 평가예민성 및 자기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척도	친애차원에 대한 요인부하량	지배차원에 대한 요인부하량
PA	.022	.955
BC	-.537	.622
DE	-.835	.113
FG	-.593	-.465
HI	-.306	-.664
JK	.152	-.504
LM	.519	.013
NO	.386	.551
평가예민성	-.239	-.091
자기몰입	-.485	.029

최대우도법으로 두 요인을 추출하여 varimax rotation을 함.